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고부가가치를 낳는 양봉만이 살아남는 길

김 희 성 / 본협회 이사 · 가보농산(주) 대표

금년 봄은 유난히도 잦은 비에 제 주도에 이동한 봉군이 번식도 좋지 않았고 유채꿀은 흉작이어서 경비도 못건진셈이었다. 다행스럽게 아카시아꿀은 평년작은 된 것 같고, 현재는 밤꽃을 찾아 이동하였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 겨울이 오는 사계절 속에 꽃따라서 심산 유곡을 찾는 양봉인들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흐르고 세월 따라 주름살도 늘어만 가는가 보다.



김 희 성

꿀을 팔아 본 경험이 있다. 한국의 아카시아꿀은 세계적인 꿀로서 그 맛과 향이 순하고 부드러워 여름철 시원한 꿀물로는 천하일품이다. 밤꿀 또한 개성이 강하여 독특한 맛을 낸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해양성 반도국으로서 기후와 토양이 좋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양봉협회에서도 2억원 상당을 투자해 탄소동위원소 측정기를 구입하여 순도 측정을 하여 품질보증 필증을 붙인 아카시아 꿀 공동브랜드화를 주창하고 있다. 벌꿀 소분 업허가가 없더라도 회원 농가에게는 몇드림 이상의 벌꿀을 모아 신청하면 봉인 검사후 필증을 부착하여 주고 있다. W.T.O 이후 벌꿀도 수입자유화 되었지만 250여 톤의 의무물량마저 잘 팔리지 않아 국영무역 을 담당하고 있는 축협중앙회가 애를 먹고 있다. 신도불이의 호재로 양봉업계는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어 다행이다. 2004년을 기점으로 무한경쟁 단계인 완전개방 이전에 양질의 벌꿀을 생산 유통시켜 국산 벌꿀의 우수성을 인정 받는 소비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믿는다.

진짜가짜 대명사는 벌꿀

흔히들 벌꿀은 부자지간에도 못 믿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신의 대상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비지땀을 흘려 생산한 벌꿀이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는 속이 상하고 만다. 옛 속담에 “아니 뎨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 동안 진짜와 가짜의 시비거리는 우리 양봉인 자신들에게도 다소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렇게 외치고 싶다. “양봉 동호인 여러분! 양질의 봉산물을 생산하여 소비문화를 창조하여 나갑시다” 그리하여 진짜 가짜의 누명을 벗고 꿀벌에 의해 만들어진 완전 식품으로서 귀한 식품 대접을 받았으면 한다.

양봉인도 경영인이 되자

앞으로 날이갈수록 양봉의 벌꿀 위주 생산 경영은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경제, 문화가 발달하고 있는 시대에 뒤지지 않으려면 일년농사가 수지맞는 경영이어야 그 산업은 장기적인 존립기반이 유지될 수 있다. 부업 양봉인은

아카시아꿀 공동 브랜드화

필자는 일본과 미국 등에서 6-7회에 걸쳐 벌

염소, 오리, 새, 사슴 등 취미와 실정에 맞는 복합영농을 하여야 할 것이고, 전업 양봉인은 벌꿀 생산 하나만 가지곤 경영 타산이 맞지 않으므로 로얄제리를 계획생산하여 수지를 맞추고 판로를 개척하여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화분, 밀납, 프로폴리스 등의 부산물을 최대한 생산하여야 한다.

외국서는 수벌애벌레(雄蜂狙) 제품이 술 안주감, 영양식 등으로 비싸게 팔리고 있다. 벌내검시에 헛집을 달았으면 떼어내어 봉장 여기저기에 내버리고 있는데 한 톨의 밀랍조각이라도 모아 자원낭비 없이 생산보국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꿀벌의 보물 프로폴리스

지금까지 프로폴리스(봉교)가 양봉농가에게 귀찮은 천덕꾸러기 존재였던 것은 내검 시에 손에 묻으면 고역이었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 꿀벌과 자연이 만든 천연 항생물질로서 항균, 항암, 항바이러스, 항산화 효과가 있는 물질로 각광받고 있다.

유럽, 일본, 미국 등지에서는 벌써부터 활발하게 연구하여 유용성과 효능이 발표되고 관련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양봉가의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내 주는 보물이 되었다. 가까운 일본에서만도 프로폴리스 시장 규모가 250엔, 환화로 2천5백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양봉 주산물 벌꿀의 시장규모는 7백억원 정도란 걸 비교해 본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러한 잠재력을 지닌 산물인데도 우리는 홍보가 되지 않아 시장형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2년 전부터 일본 '모리카와건강당'과 목포대학교 식품산업연구센터와 지속적인 연구노력으로 인해 얼마 전 '바이오프로폴리스'라는 연질캡셀형의 복용하기 편한 제품을 개발하였다. 일본은 양봉전문 회사들이 주도하

여 바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폴리스 시장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도 프로폴리스 시장이 형성되려면 5년 정도 걸린다고 내다보는데, 우리 다 함께 노력한다면 조금은 앞당겨 지리라 생각한다. 국산 프로폴리스의 우수성에 대하여 전북대학교 박형기 교수의 발표와 아울러 필자 역시 목포대학교에서 브리질산, 중국산, 국산 등에 대하여 산·학협동으로 연구하고 있어 희망적으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본 모리카와 건강당에서도 국산 프로폴리스 원자재를 수입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다만 앞으로 봄이 일어났을 경우 협잡 상품이 나오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양질의 프로폴리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프로폴리스 채취방법과 생산기구 개발·보급이 가장 시급하다. 그때까지 현재 가능한 좋은 방법은 개포 밑에 나일론 망사를 개포 크기로 잘라 덮어 둔다. 프로폴리스 채취 나일론 망사 위에 덧씌운 개포는 화학섬유나 수입마대 등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당목 등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는 재질을 골라 사용해야 한다. 연중 2회 채취로 군당 350g정도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여름철에는 프로폴리스가 묻어있는 망을 냉동실에 넣었다가 털면 잘 털어진다. 이런 방법이라면 큰 일손이 필요치 않고 전 양봉인이 생산하게 될 때 부업 소득은 물론 건강식품으로서의 고부가가치를 낳고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미 프로폴리스의 효능이 입증된 바 프로폴리스 시장이 형성될 때는 양봉산물에 대한 시너지(동반상승)효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본다.

양봉인의 긍지를 갖자

꿀벌은 영충이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양봉인은 꿀벌을 사랑하고 양봉산물을 나눠 가지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생산보국을 한다고 자부하여도 좋을 것이다. 곤충이

사라져 농작물의 화분매개 담당을 사람의 보호아래 있는 이 꿀벌에 의해서 수분작용을 하여야 하고 머지않아 지구촌의 수목들도 꿀벌이 담당하여야 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리라고 본다. 꿀벌이 살아야 농업이 산다고 꿀벌을 예찬해 보지만 정책적인 보호육성과 배려가 필요한 때이다.

양봉산물의 산업화와 그 전망

양질의 국산 양봉산물을 알리고 소비문화를 형성하였을 때 소득도 보장받고 국제경쟁력이 있으며, 그 전망도 매우 밝다고 본다. 필자는 업계에서 가장먼저 썬꿀, 영지꿀차, 꿀들깨, 꿀호박잼 등 양봉산물을 가공식품을 개발해 왔다. 천연꿀과 궁합이 맞는 농특산물을 넣고 일체 기타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는 단순가공형으로 주도하여 벌꿀을 이용한 가공산업에 붐을 일으켜 이바지하였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유사상품과 경쟁에 밀려 시장 또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이런 상품들이 맛을 내고 더욱 연구 노력하여 제품

생산이 되어야 하는데 당류 중에 벌꿀은 5~10% 넣고 기타 당류는 과당이나 이성화당을 넣고 합법적으로 “○○꿀차”라고 하기 때문에 천연꿀 만을 고집하여 사용한 경우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만다.

일본의 경우는 양봉업계서 자수성가한 양봉가들이 재투자한 건강보조식품 개발에 일찍 눈을 돌린 결과 전 일본의 양봉인이라야 고작 7천 여명에 불과한 왜소한 규모임에도 벌꿀을 비롯한 로얄제리·프로폴리스 등 가공식품 유통부문에선 세계서 가장 큰 시장규모를 지키고 있는 그네들의 장인정신이 부러울 지경이다.

이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입맛으로서 승부를 거는 벌꿀을 비롯한 로얄제리와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산물의 고부가가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소비창출의 길은 열릴 것이며, 양봉 대국이 이루어지리라 믿으면서, 어려운 현장에서 용기를 가지고 몇 십만, 몇 백만의 대군을 거닐고 산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8 수입(MMA)꿀 판매공고

1. 판매에 부치는 사항

품 목	품질규격	원산지	밀 원	수 량	드럼수	드럼중량
수입천연꿀	보건복지부 식품규격 적합	미 국	싸 리 꿀 크로바꿀	80톤 53.35톤	282 188	284kg
		캐나다	잡 화 꿀	133.35톤	470	

2. 판매장소 : 축협중앙회 축산기획부

3. 판매방법 : 구매희망 실수요자에게 희망물량(284kg드럼단위)을 선착순 판매

4. 판매가격 : 드럼당 894,600원(3,150원/kg당) *미국,캐나다산 공통

○현금 또는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등으로 축협중앙회에 납부

5. 구입시 제출서류 : 최초 거래에 한하여 제출

○사업자등록증(비사업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원산지 표시의무 이행준수 각서 1부

6. 물품 인도조건 : 보관장소(축협중앙회 부산사업소 사상창고) 문전상차도

7. 기타사항 문의처 : 축협중앙회 축산기획부(02-2224-8417)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